



# 과개교합(Deep overbite) 환자에서의 완전구강회복 증례

박종현\*, 조리라, 이양진, 박찬진 | 강릉대학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과개교합(deep overbite)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만일 치아가 안정된 중심위 접촉을 갖고 있으면 과개교합의 관계에 있는 치아는 대부분 문제가 없다. 과개교합 치료의 관건은 적절한 중심위 확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악전치의 지속적인 맹출을 막지 못하여 치은조직이나 상악 구개 속으로 맹출 하는 것이 과개교합과 관련되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하악전치의 지속적인 맹출을 막지 못하여 치은조직이나 상악 전치부 치아접촉이 상실된 과개교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교정적 치아이동, 수복을 통한 재형성, 연결고정(splinting), 야간에 교합상 사용, 가철성 국소의치의 주연결장치를 연장해 접촉을 확립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과개교합 환자에서 부적절하고 광범위한 구 수복물은 환자의 과개교합 성향을 악화시킬 수 있다.

본 증례의 환자는 70세의 남성 환자로서 구 수복물 하방의 2차 우식 및 다수 치아의 우식으로 인한 치아 상실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41 치아의 지속적인 맹출로 인해 1년 전 개창금속관을 통한 전치부 중심위 접촉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치아 우식이 진행된 상태였다. 또한 #42 치아의 전치부 접촉이 상실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맹출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부적절한 구 수복물 및 불량한 구강 위생으로 인해 다수의 치아에 우식이 발생하였다. 구강 내 대부분의 치아가 우식 및 마모로 인해 수복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과개교합 문제를 완전 구강회복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 1) 구 수복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알지네이트 인상을 채득하여 진단모형을 제작 하였다.
- 2) Bio-CR<sup>®</sup>을 이용하여 환자의 새로운 중심위 교합을 교합기에 이전하였다.
- 3) 진단 wax-up을 시행하여 임시 수복물을 제작하였으며 임시 수복물을 이용하여 2개월간 조절을 시행하였다.
- 4) 하악 전치의 지속적인 맹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악 전치부 치아는 중심위 교합을 형성해 주었으며 #42 치아는 측방 교합 접촉만 형성해 주었다.
- 5) 환자는 새로운 중심위 관계에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않고 임시수복물이 원활하게 기능하였으며 미소선에 조화로운 수복이 가능하여 임시수복물의 교합과 형태를 최종 보철물에 인기하였다.
- 6) 최종 보철물은 상악 잔존 지대치 치아를 이용한 고정성 국소의치의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후 가철성 국소의치로 전환 가능한 형태로 수복을 시행하였으며 하악 좌측 무치악 부위는 가철성 국소의치로 수복하였다.

이상과 같이 치아우식과 마모로 인해 전악 수복을 필요로 하는 과개교합 환자에서 완전구강회복을 통해 기능 및 심미적인 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